

SK, 한농화성에 환경경영 전수!

10개 협력기업과 통합체계 구축 ...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앞장

SK(대표 황두열)가 석유화학계의 환경경영 선도기업으로 앞장선다.

SK는 9월29일 서린동 본사 35층에서 자사에 제품을 납품·공급하는 한농화성 등 10개 협력기업과 통합환경경영체계(ISO14000) 구축 및 청정생산 기술을 이전 협약식을 가졌다.

SK는 9월 초 국내 대기업이 축적한 환경경영 체계와 환경친화적 경영 노하우를 공급기업의 환경경영에 확산시키기 위해 산업자원부 산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가 주관하고 있는 친환경공급망관리체계 SCEM(Supply Chain Environment Management) 구축 사업의 <청정생산 이전 확산사업> 석유화학업종 주관 사업자로 선정됐다.

SK 황두열 부회장은 “기업이 환경친화적 경영을 함에 있어 공급자와의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최근 글로벌 스탠다드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앞으로 공급기업 뿐만 아니라 SK의 구매기업에까지 청정생산 기술 및 환경경영 노하우를 이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SK가 환경기업으로서의 경영활동을 수행해 나갈 것이며, 사회 전체의 환경요구를 충족시켜 나가는 책임 있는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SK-한농화성의 환경경영 및 청정생산 기술 이전 협약서 전달



† 한농화성 김응상 사장, 산자부 김종갑 차관보, SK 황두열 부회장을 비롯한 10개 협력기업 대표

협약식에는 SK 황두열 부회장, SCEM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산자부 김종갑 차관보, 한농화성 김응상 사장을 비롯한 10개 협력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3/09/30>